

#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자기애와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의 관계

## The Relationship among Dance-majoring High School Students Narcissism, Self-management and Eating Disorder

양소정, 안병순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미디어학과

So-Jung Yang(didth012@naver.com), Byoung-Soon Ahn(ahnbs@sch.ac.kr)

### 요약

이 연구는 섭식장애와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예술고등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t-test, 일원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라 섭식장애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자기관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용경력에 따라 자기애성향, 자기관리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정형편에 따라서는 자기애성향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주도적 자기애 성향은 자기관리의 모든 하위요인에 정(+ )의 영향을 미쳤으며 타인의존적 자기애 성향은 훈련 관리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타인 의존적 자기애성향은 폭식증에도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타인의존적 자기애 성향은 대인관계를 높이고 이에 따라 폭식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자기애 | 자기관리 | 섭식장애 |

### Abstract

To investigate and verify the relationship among dance-majoring high school students' narcissistic trait, self-management and eating disorder, this study collected samples from 200 students by selecting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dance in arts high schools. For data analysis, this study used t-test, one 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dance-majoring high school students' narcissistic trait, self-management and eating disorder, this study produced following results. First, results of investigation on the difference in narcissistic trait, self-management and eating disorder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eating disorder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gender, and self-management also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according to grade. Second, results of analysis on the effect of dance-majoring high school students' narcissistic trait on self-management show that self-initiative narcissistic trait exerted a positive (+) effect on all sub-factors of self-management, and other-dependent narcissistic trait turned out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training management. Thir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effect of dance-majoring high school students' perfectionism inclination on their eating disorder, other-dependent narcissistic trait exerts a positive (+) effect on sitomania.

■ keyword : | Narcissism | Self Care | Eating Disorder |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8년 06월 28일

수정일자 : 2018년 07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7월 25일

교신저자 : 안병순, e-mail : ahnbs@sch.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위한 성향은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면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외면의 아름다움을 위해 화장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노력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1]. 특히 무용은 신체를 통한 움직임 예술로서 정신적·정서적·감정적인 예술육구에 대한 표현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신체와 이미지의 이상적인 형상을 꿈꾸는 것이다. 균형 잡힌 몸매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아름다운 체형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때문에 무용을 전공하는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에서 성과를 위해 체중조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체에 불필요한 지방이 없으면서 무용에 적합한 몸매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무용연습을 하더라도 식이조절을 병행 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 무용인들이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 체중이라고 이지은(2007)의 선행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2]. 하지만 이상적인 신체를 위해 체중조절과 지나친 다이어트를 진행함으로써 체중조절을 위해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용전공고등학생들은 무리한 체중조절을 위해 폭식증, 거식증과 같은 섭식장애를 경험하게 된다[3].

자기애 성향과 자기관리, 섭식장애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자기관리나 섭식장애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기애 성향에 관한 무용 분야의 연구로는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자기표현 및 무용 몰입에 대한 김현경(2015)의 연구가 있으나, 연구 대상 또한 무용 전공대학생들에 제한을 두고 있어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기애 성향과 자기관리, 섭식장애에 미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4]. 이 연구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애 성향과 섭식장애가 관련성이 있음을 예측하고, 자기애성향과 자기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관계들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무용전공 고등학생에게 섭식장애가 미치는 방안을 제

시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올바른 섭식태도 인지에 도움을 주고, 자기애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며, 효율적인 자기관리 향상에 그 목적을 둔다. 이에 섭식장애와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섭식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

### 2. 연구 문제

자기애 성향과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무용전공고등학생들의 섭식장애에 관련된 변인을 규명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섭식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건강한 무용수행을 이룰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문제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기애와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는 차이가 있는가?
- 문제2. 자기애 성향과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문제3. 자기애 성향이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자기애 성향, 자기관리 및 섭식 장애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예술 고등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200명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표집방법은 비확률표집 방법인 판단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35	17.5
	여자	165	82.5

학년	1학년	76	38.0
	2학년	68	34.0
	3학년	56	28.0
무용 경력	a:1년이하	27	13.6
	b:2-4년	86	43.2
	c:5-7년	52	26.1
	d:8년이상	34	17.1

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적 특성 3문항, 자기에성향 20문항, 자기관리 12문항, 섭식장애 24문항 총 6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특성은 성별, 학년, 무용경력 3문항을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자기에 성향은 강은영(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이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자기주도적 자기에와 타인의존적 자기에 등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5].

자기관리는 김병준(2003)이 개발하고 허정훈(2003), 한혜원(2010) 등이 사용한 설문지를 이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 정신관리 등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6].

섭식장애는 Garner와 Garfinkel(1980)이 개발한 섭식태도 검사와 Halmi, Falk와 Schwartz(1981)가 개발한 폭식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구성한 신미영(1997)의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폭식증, 거식증 등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7]. 각 요인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요인의 타당도와 신뢰도

자기애					
문항	자기주도	타인의존	문항	자기주도	타인의존
17	.829	-.105	2	.654	.473
19	.773	.063	15	.566	.348
13	.760	.248	5	.552	.403
14	.750	.270	11	.522	.388
16	.713	.134	4	.135	.869
20	.670	.383	3	.025	.827
			1	.485	.567
고유치	4.962		2.734		
분산	38.169		21.029		
누적분산(%)	38.169		59.198		
신뢰도	.889		.735		

	자기관리			
	훈련관리	정신관리	몸관리	대인관리
8	.800	.357	.255	.185
7	.779	.414	.181	.149
9	.776	.188	.277	.290
10	.701	.277	.170	.467
5	.245	.834	.273	.232
6	.426	.758	.064	.159
4	.279	.700	.360	.289
1	.100	.187	.832	.223
2	.453	.088	.741	-.268
3	.193	.296	.719	.369
12	.356	.323	.180	.743
11	.550	.398	.146	.600
고유치	3.341	2.565	2.224	1.690
분산	27,839	21,375	18,537	14,085
누적분산(%)	27,839	49,214	67,751	81,836
신뢰도	.924	.868	.784	.849

  

섭식장애					
문항	폭식증	거식증	문항	폭식증	거식증
12	.806	.142	9	.602	.221
16	.805	.197	21	.561	.064
14	.800	.124	19	.538	.115
13	.792	.107	8	.118	.862
10	.777	.218	3	.067	.857
11	.769	.193	2	.123	.855
15	.762	.147	1	.114	.855
23	.713	.000	7	.086	.842
24	.650	-.098	6	.019	.828
22	.642	-.162	5	.203	.807
고유치	6.423		5.225		
분산	33,805		27,500		
누적분산(%)	33,805		61,305		
신뢰도	.923		.937		

\*p<.05, \*\*p<.01, \*\*\*p<.001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 광주, 충남의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예술고등학교에 방문하여 교사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학생들에게 설문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 동의 허락을 받았다. 이후 자료 확보를 위해 자발적 참여자에 한하여 연구의 목적과 응답요령을 충분히 설명한 후 솔직한 응답을 부탁 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학생들에 따라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설문지에 응답을 완료하면 즉시 회수하였으며, 이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자기에와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의 관계분석을 규명하기 위해 최종 200부의 자료를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에서의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alpha=.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하고 총 199명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개인적 특성과 자기에성향,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

1.1 성별과 자기에 성향,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

성별에 따른 자기에 성향,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섭식장애의 하위요인인 거식증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M=3.31)가 남자(M=2.84)보다 거식증 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기에성향과 자기관리의 모든 하위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밝혀지지 않았다.

표 3. 성별별 자기에성향과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의 차이

변인	하위변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자기에 성향	타인지향 자기에	남자	3.5147	.84822	1.040
		여자	3.3782	.66250	
	자기주도 자기에	남자	3.6275	.77748	-.442
		여자	3.6808	.60999	
자기 관리	연습관리	남자	3.6544	.82116	.472
		여자	3.5803	.83693	
	대인관리	남자	3.6765	.78917	-.507
		여자	3.7515	.78490	
	정신관리	남자	3.7647	.92307	.126
		여자	3.7424	.93803	
	몸관리	남자	3.1765	.89230	-1.520
		여자	3.4263	.86844	
섭식 장애	폭식증	남자	3.1471	.83353	-.428
		여자	3.2065	.71748	
	거식증	남자	2.8487	1.12647	-2.820**
		여자	3.3100	.80652	

1.2 학년과 자기에 성향,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

학년에 따른 자기에성향과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관리의 하위요인인 정신관리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미미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표 4. 학년별 자기에 성향,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의 차이

변인	하위 변인	성별	평균	표준 편차	t
자기에 성향	타인지향 자기에	1학년	3,300	.6411	1,040
		2학년	3,509	.622	
		3학년	3,410	.833	
	자기주도 자기에	1학년	3,554	.585	-.442
		2학년	3,796	.619	
		3학년	3,681	.712	
자기관리	연습관리	1학년	3,444	.813	.472
		2학년	3,757	.773	
		3학년	3,598	.901	
	대인관리	1학년	3,593	.829	-.507
		2학년	3,596	.765	
		3학년	3,779	.722	
정신관리	1학년	3,532	.970	.126*	
	2학년	3,910	.883		
	3학년	3,839	.900		
섭식장애	몸관리	1학년	3,267	.872	-1,520
		2학년	3,442	.907	
		3학년	3,470	.837	
	폭식증	1학년	3,113	.697	-.428
		2학년	3,262	.858	
		3학년	3,229	.775	
거식증	1학년	3,174	.725	-2,820	
	2학년	3,394	.966		
	3학년	3,112	.958		

\*p<.05, \*\*p<.01, \*\*\*p<.001

학년에 따른 자기에 성향,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학년과 3학년이 1학년에 비해 정신관리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3 무용경력과 자기에 성향,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

경력에 따른 자기에성향과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관리의 하위요인인 연습관리와 대인관리, 정신관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밝혀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용경력이 5-7년인 집단과 8년 이상인 집단이 1년 이하인 집단보다 연습관리와 대인관리가 높았으며, 8년 이상인 집단은 1년 이하인 집

단보다 정신관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경력별 자기애성향과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

변인	하위변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자기애성향	타인지향 자기애	a:1년이하	3.281	.457	.979	
		b:2-4년	3.360	.723		
		c:5-7년	3.532	.632		
		d:8년이상	3.400	.861		
	자기주도 자기애	1년이하	3.425	.485	2.973	*
		2-4년	3.614	.658		
		5-7년	3.830	.569		
		8년이상	3.769	.738		
	연습관리	1년이하	3.157	.669	4.177	a(c,d)
		2-4년	3.552	.937		
		5-7년	3.721	.704		
		8년이상	3.845	.723		
대인관리	1년이하	3.321	.588	4.302	a(c,d)	
	2-4년	3.705	.862			
	5-7년	3.846	.736			
	8년이상	3.990	.658			
정신관리	1년이하	3.370	.659	3.607	a(d)	
	2-4년	3.657	.988			
	5-7년	3.865	.863			
	8년이상	4.088	.965			
몸관리	1년이하	3.185	.557	1.645		
	2-4년	3.294	1.012			
	5-7년	3.519	.680			
	8년이상	3.558	.938			
섭식장애	거식증	1년이하	3.088	.806	.662	
		2-4년	3.151	.729		
		5-7년	3.295	.710		
		8년이상	3.244	.747		
거식증	1년이하	2.941	.773	2.122		
	2-4년	3.171	.907			
	5-7년	3.434	.736			
	8년이상	3.302	1.050			

\*p<.05, \*\*p<.01, \*\*\*p<.001

## 2. 자기애 성향과 자기관리

자기애 성향이 자기관리와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자기애성향과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타인 의존 자기애	1	.713***	.403***	.284***	.320***	.302***	.242**	.154*
자기주도적 자기애	.713***	1	.425***	.406***	.439***	.340***	.116	.152*
연습관리	.403***	.425***	1	.736***	.773***	.583***	.120	.281***
대인관리	.284***	.406***	.736***	1	.728***	.567***	.186**	.126
정신관리	.320***	.439***	.773***	.728***	1	.487***	.089	.102
몸관리	.302***	.340***	.583***	.567***	.487***	1	.129	.418***
폭식증	.242**	.116	.120	.186***	.089	.129	1	.259***
거식증	.154*	.152*	.281***	.126	.102	.418***	.259***	1
평균	3.401	3.671	3.593	3.738	3.746	3.383	3.196	3.231
표준편차	.697	.639	.832	.784	.933	.875	.736	.883

\*p<.05, \*\*p<.01, \*\*\*p<.001

무용 전공고등학생의 자기애성향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표 7. 자기애성향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연습관리			대인관리			정신관리			몸관리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1.428			4.530		1.918	6.318		1.385	3.899		1.591	4.581
타인 의존 자기애	.242	.202	2.220*	-.014	-.013	-.137	.017	.013	.140	.153	.122	.125	
자기주도적 자기애	.366	.281	3.084**	.509	.416	4.461***	.627	.430	4.696***	.347	.253	2.655**	
	F=24.6/ R <sup>2</sup> = 19.3			F=19.4 / R <sup>2</sup> = 15.7			F=23.4/ R <sup>2</sup> = 18.5			F=13.7/ R <sup>2</sup> = 11.4			

\*p<.05, \*\*p<.01, \*\*\*p<.001

자기애성향의 하위요인인 타인의존 자기애성향은 연습관리(β=.202, t=2.220)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주도적 자기애성향은 연습관리(β=.281, t=3.084), 대인관리(β=.416, t=4.461), 정신관리(β=.430, t=4.696), 몸관리(β=.258, t=2.655) 등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정적 영향(p<.01, p<.001, p<.001,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기에성향과 섭식장애

자기에 성향이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에 성향의 하위요인 중 타인의존 자기에는 섭식장애의 하위요인인 폭식증( $\beta=.326, t=3.306$ )에 유의미한 정적영향( $p<.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기에성향이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

	폭식증			거식증		
	b	$\beta$	t	b	$\beta$	t
(상수)	2,519		8,350	2,398		6,495
타인의존 자기에	.344	.326	3.306**	.117	.093	.920
자기주도적 자기에	-.134	-.117	-1.185	.118	.086	.853
	F=6.8/ R <sup>2</sup> = 5.6			F=2.7/ R <sup>2</sup> = 1.7		

\*p<.05, \*\*p<.01, \*\*\*p<.001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자기에 성향, 자기관리 및 섭식 장애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고등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명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그 중사용이 불가능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하고 총 19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t-test, 일원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기에 성향과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섭식장애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자기관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무용경력에 따라 자기에성향, 자기관리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가정형편에 따라 자기에성향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거식증 증세가 높고 2학년이 1학년보다 정신관리를 잘하는 것을 알수있었다. 또한 무용 경력이 높을수록 자기관리를 잘하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이 중상이라고 인지하는 학생들이 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보다 자기주도적 자기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자기에성향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주도적 자기에 성향은 자기관리의 모든 하위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타인의존적 자기에 성향은 훈련 관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자기에성향이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타인 의존적 자기에성향은 폭식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자기관리 및 섭식장애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타인의존적 자기에 성향은 대인관계는 높아졌으나 폭식증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이 요인들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기주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관리를 잘하고 타인의존적 자기에성향이 높을수록 폭식증 증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타인의존적 자기에 성향은 대인관리를 높이고 이로 인한 폭식성향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역설적으로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자기관리를 높이고, 섭식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자기관리는 섭식장애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올바른 섭식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상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제언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결과 및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섭식태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관리와 섭식장애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상정하여 규명할 수 있는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섭식장애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의 다각적인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사례에서는 일부지역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무용 전공 초·중·고등학생의 차이를 연구하고 성장기의 차이점을 전제로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서은혜, 자기애성향,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 이지은, 직업무용수들의 식사태도와 섭식장애 행동유형의 관계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 이화석, 최재희,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 관리, 무용활동만족, 공연자신감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5, 2013.

[4] 김현경,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애성향과 자기표현 및 무용몰입의 관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5] 강은영, 자기주도적 자기애 및 타인의존적 자기애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6] 허정훈, 운동선수 자기관리 측정도구의 구조적 타당화와 인과모형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7] 김광자, 무용수들의 개인 및 연습변인과 섭식행동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8] 왕희정, 정선아, “일개 대학 여자신입생의 우울 섭식장애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11, 2016.

**저 자 소 개**

**양 소 정(So-Jung Yang)**

준회원



- 2011년 2월 :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 무용과(무용학사)
- 2016년 9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공연영상미디어학과
- 2016년 5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 무용교육, 무용창작

**안 병 순(Byoung-Soon Ahn)**

정회원



- 1987년 2월 : 세종대학교 무용학과(무용학사)
- 1989년 8월 : 세종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 석사)
- 2005년 8월 : 단국대학교 무용학과(무용학 박사)

▪ 2000년 9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SCH미디어랩스 공연영상학과 교수

<관심분야> : 무용교육, 무용창작